

## 미래를 향한 뒷받침

사천여 근로자의 뜨거운 의지를 모아 황량한 벌판 위에 기반을 다져서 교사를 짓고 인재를 널리 모아 개교한 지 네번째 교지 발간에 즈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부푼 기대 속에 다가오는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눈이 핑글핑글 돌아갈 정도로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인들은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설계하고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미래관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간의 능력과 심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부정적인 미래관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인간의 능력과 심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하는 곳이라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완전한 인간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봅니다. 교육이란 말하자면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학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가치 체계가 인정되는 개방사회를 전제로 하여 다양성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 존재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대한 사학의 지대한 공헌과 높은 사학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학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교에서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재단이사장 이강희

실시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조직적인 발달은 그 초점이 교육 환경의 전체적인 개선에 있는 바 대체로 학교의 교육 풍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학교내에서의 성취의욕 고취와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다 전인적이고 생기있는 학습을 위한 어학실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3원 방송 체계를 갖추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방송국을 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컴퓨터 시설을 구비하여 전산실을 1인 1기종으로 확충하였고 학교 각 관리실에 행정 능률화를 꾀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90년도 이래 매년 15명씩 4년간 60명에게 27,114,000원을 성적 우수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싱가포르와 태국 등 연간 9명씩 2년간에 걸쳐 동남아시아 해외 연수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교는 해마다 학교의 열성적 지도와 가정의 변함없는 관심에 힘입어 대학 진학률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부상하여 사학의 명문 고교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자상하고 열의적인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학부모 가정에 무한한 건승을 바라며 쾌기있고 자신감있게 본교를 빛낸 학생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